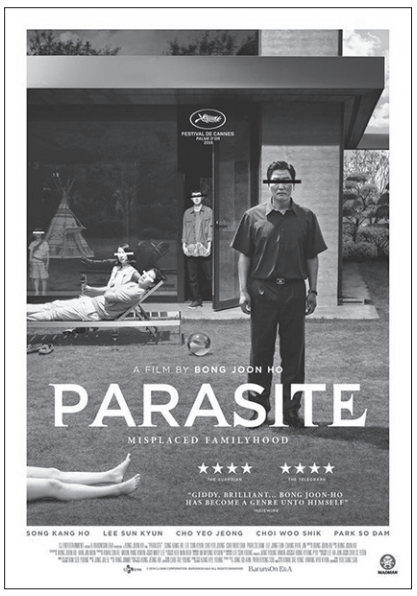
NYT, '기생충' 올해의 영화 선정



뉴욕타임스(NYT)가 '기생충'을 '올해의 영화'로 꼽으면서 봉준호 감독의 작품 세계를 조명했다.

지난달 31일 '씨네리와인드'(cine-rewind.com)에 따르면 NYT는 이날 "우리는 봉준호의 디스토피아에 살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영화 기생충은 한국 사회가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논쟁을 이어가게 했다."며 "유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미국에서 영화 '기생충'으로 봉준호는 소수 마니아가 열광하던 감독에서 세계적인 일류 감독으로 도약했다."고 극찬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기생충'이 내년 아카데미영화제에서 외국어영화상을 뛰어넘어 작품상 후보로도 거론된다고까지 소개했다.

NYT는 "봉 감독은 (영화에서) '평등한 사회를 향한 약속'에 다시 불을 지피는 방식으로 사회적 의식과 오락성을 결합한다."면 "기생충은 호러와 풍자, 비극이 혼합된 현대판 우화로, 한국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 벌어지고 있는 계급 투쟁에 대한 날카로운 교훈을 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NYT는 또 "봉 감독의 영화는 대담하고 밝으며 풍부한 색깔과 분명한 연기(연출)로 채워진다."면서 "재미있고 서스펜스가 넘치며 간간이 액션신이 끼어들어 극장에서 지루해하던 관객들마저 자세를 고쳐잡고 헉하고 숨을 참게 만든다."고 했다.

이 매체는 "봉 감독 작품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진정성일 것"이라며 "악의와 게으름, 자기기만의 연대기 속 깜빡이는 따뜻한 인간애가 그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기생충'을 올해의 영화로 만들고, 봉준호를 세기의 감독으로 만드는 것은 인생을 판타지인 동시에 사실적으로 그리고, 대단히 은유적이면서도 동시에 통렬하게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데 성공한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K팝팬 10명 중 9명 "한국여행 희망"

세계 K팝 팬 10명 중 9명이 한국여행을 희망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나 나왔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8일, 111개국 1만2천663명 K팝 팬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9.8%가 향후 관광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방한을 원하는 시기로는 가장 많은 76.4%가 1년 내 방문하겠다고 답했다.

응답자 36.1%가 가장 선호하는 K팝 스타로 BTS를 꼽았다. 이어 EXO(10.4%), 슈퍼주니어(8.2%), 빅뱅(5.6%), 신화(3.0%), 아이유(2.7%) 등 순이었다.

특히 BTS는 지역별로 유럽(50.0%)과 일본(44.5%), 미주(43.4%) 등에서 인기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10~14세(69.1%), 15~19세(53.7%), 20~24세(38.4%) 등 순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 밖에도 K팝 스타를 알게 된 최초 경로로는 가장 많은 30.6%가 유튜브를 꼽았고, TV(29.4%), 가족·지인 소개(16.2%)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K팝 스타 관련 콘텐츠를 접하기 위한 채널도 유튜브(37.6%)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37.5%)가 가장 많았다.

관광공사는 "지난 3년간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응답자의 86.8%가 K팝 선호가 한국 관광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며 "K팝 인기가 한국 여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 관광 의향이 높은 K팝 팬들을 대상으로 K팝과 연계된 다양한 한류 관광 콘텐츠를 유튜브와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우 제인폰다, 체포된 상태에서 '바프타 공로상'

영화배우 제인 폰다가 불법 시위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로 영국 아카데미(바프타·BAFTA) 공로상을 수상했다.

폰다는 지난 25일 LA 베벌리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28회 바프타 브리타니아 시상식에서 '스탠리 큐브릭 상' 수상자로 호명됐다. 바프타 브리타니아는 1월 영국에서 여는 본상 시상식과 별도로 미국 영화인 위주로 수상자를 선정하는 행사다. 영국 가디언은 "스탠리 큐브릭 상은 세계 영화사에 독창적 업적을 남긴 인물을 기리는 상으로 메릴 스트립, 조지 클루니 등이 수상했다."고 전했다.

폰다는 지난 18일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 동쪽 출입문 앞에서 기후 이상 변화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을 촉구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의사당 경찰 공보관은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폰다를 포함한 시민 17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에서는 수갑이 채워져 여경에게 붙잡혀가는 폰다가 현장을 촬영하는 카메라를 향해 "고마워요 바프타!"라고 외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상영됐다.

폰다는 배우 헨리 폰다(1905~1982)의 딸로 영화 '클루트'(1971년)와 '귀향'(1978년)으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2회 수상했다. 1970년대에는 베트남전쟁 반대 시위에, 2000년대에는 이라크전쟁 반대 시위에 참여하는 등 사회운동가로도 활동해 왔다.

1288호 숫자퍼즐 (이번호 정답은 P53에 있습니다)

5			7				8	
	1				2			3
		2	3			6		
7		4		5				
			2				1	8
		6				7		5
	6			1	3	8		
3			4		8			
	7						3	9

Candice K. Kim(김경아)
714-373-6883
7645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1
CA Insurance Agent #: 0B30329
자동차 주택 사업체 생명
Allstate®
You're in good hands.
© 2019 Allstate Insurance Co.
9772519

• 왕초보 전문 •
기가 찬 영어교육
"참 영어공부 열심히 할 뻔 했다"
너무나 미안하게 쉬운 방법 제시
I Stand Behind my Teachings
-공개 강의내용-
하고 싶은 말이 영어로 나오게 습득시간을 단축하는 방법
영어를 첫 수업에 한 눈에 들어오게 영어 헛수고 방지법 공개

시험위주와 상업주의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교육은 없었다.
스스로 납득이 될 때까지 무료교육실시
피 같은 돈과 세월을 아끼세요.
루이스 영어 전문 교실
213.284.4725
714.797.4028
4055 Wilshire Blvd. #301 Los Angeles, CA 90010
15435 S. Western Ave., Gardena, CA 90249
905 S. Euclid St. #208. Fullerton, CA 92832